

신경증적 척도에 의한 대학생의 정신건강 평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이중훈 · 박형배 · 정성덕

서 론

신경증적 경향이란 인격의 구조상 다양한 신경증을 이미 일으켰거나 장차 일으키기 쉬운 경향을 의미한다. 신경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독특한 성격구조를 갖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이들은 내적 및 심리적 문제나 자극적인 상황에 처할 때 야기되는 불안이 일반적 수준보다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과잉 긴장된 결과 여러 가지 과민하거나 혼란된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대처하게 된다. 이들의 적응방식은 성장과정의 발달단계상 자신이 만족스럽다고 여겨지는 과거 경험을 통하여 선택되기 때문에 행동적, 정서적 및 심리적인 적응수준이 다양하여 경향들을 나타내게 되므로 현 나이 수준에 부합되지 않음은 물론 퇴행되는 경향을 보인다.¹⁾

최근 미국 정신의학회가 채택한 분류법(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II)에 의하면 신경증적 장애는 본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생소하게 인식되는 고통스런 신체 및 정신증상들이 주된 장애로서 현실판단은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행동도 전반적인 사회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은 치료받지 않으면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거나 재발되기 쉬우며 일시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며 또 들어날 만한 기질적 원인이 없다고 정의한다.²⁾

역사적으로 볼 때 Freud는 히스테리나 공포증과 같은 신경증의 연구에서 부터 그의 정신분석적 이론을 정립시켰는데 그도 초기에는 신경증의 기질적인 원인을 많이 고려한 탓으로 신경증을 진성신경증(actual neurosis)과 정신신경증(psychoneurosis)로 구분하여 전자를 신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신경쇠약(neurasthenia)과 긴장염려증(hypochondriasis) 등을 포함 시켰으며 후자는 심리적 요인이 일차적인 것으로 보고 히스테리나 강박신경증을 포함시켰다.³⁾ 그러나 이 후 자아심리학(ego psychology)⁴⁾의 발달과 더불어 신경증에 대한 정의나 분류법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즉, 신경증은 불안으로 특징되는 정신장애로서 그 불안은 직접 경험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의식적 과정을 통해 경험될 수도 있다. 즉 전환(conversion)되거나 해리(dissociation), 전위(displacement), 이인화(depersonalization)되어 각기 그 방어기체에 특징적인 신경증, 즉 전환신경증(conversion neurosis), 해리신경증(dissociation neurosis), 공포신경증(phobic neurosis) 및 이인화신경증(depersonalization neurosis) 등으로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이들은 모두 단일한 범주의 정신장애로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분류된 것이 과거 미국 정신의학회의 분류법(DSM-II)이며, 또 현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분류법(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9)이다.^{5~6)}

그러나 오늘날은 신경증에 대한 정신역동적인 해석과 이론이 쇠퇴하는 반면 기질적 및 생물학적인 연구가 점차 활기를 띠면서 그 분류법도 많이 변하고 있다. 예컨대 정동장애나 불안장애에 대한 유전적이거나 생물학적 연구로 인하여 과거 신경증적 우울은 정동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었으며 강박충동장애나 공포증들은 불안장애에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 또 이들 신경증들은 동일한 신경증적 장애의 범주가 아닌 몇 개의 별개 범주로 나누어지고 있다.²⁾

대집단을 대상으로 신경증적 경향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는 일찌기 Eysenck에 의하여 시도된 바 있다.⁷⁾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신경증에 대한 다

양한 유형별 세부집단 보다는 다수의 집단에서 신경증적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조사대상 및 방법

198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영남대학교 13개 단과대학 학생 18,819명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층화추출하여 각 단과대학 조교 선생님들의 협조로 Eysenck 가

고안한 신경증적척도(부표 참조)에 의한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 하였다 총응답자 수는 5,869 명으로 남학생은 전체학생의 28.2%에 해당했고 여학생은 39.4%였으며, 남녀 응답자 수는 전체 학생의 31.2%에 해당했다(표1). 학년별로는 남녀 합해서 1학년이 32.9%, 2학년이 36.1%, 3학년이 32.6%였고 4학년이 20.3%였다(표2).

연령별로는 19세가 20.5%, 20세가 22.5%, 21세가 13.9%, 22세가 8.1%로서 19세에서 22세가 전체의 65%였다(표3).

Table 1. Distribution of Respondents in the University Students by Attended College and Sex

College	No. of Attended Students			Respondents		
	Male	Female	Both	Male (%)	Female (%)	Both (%)
Liberal Arts	1,160	1,162	2,322	450 (38.8)	550 (47.3)	1,000 (43.1)
Science	831	465	1,296	134 (16.1)	91 (19.6)	225 (17.4)
Engineering	4,252	74	4,326	1,413 (33.2)	31 (41.9)	1,444 (33.4)
Law & Political	763	24	787	100 (13.1)	7 (29.2)	107 (13.6)
Commerce & Economics	1,483	17	1,500	409 (27.6)	9 (52.9)	418 (27.9)
Medicine	292	40	332	206 (70.5)	34 (85.0)	240 (72.3)
Pharmacy	109	271	380	48 (44.0)	156 (57.6)	204 (53.7)
Agriculture	1,168	168	1,336	355 (30.4)	38 (22.6)	393 (29.4)
Home Economics	0	808	808	0	413 (51.1)	413 (51.1)
Education	563	726	1,289	91 (16.2)	260 (35.8)	351 (27.2)
Fine Arts	223	310	533	87 (39.0)	139 (44.8)	226 (42.4)
Musics	111	465	576	48 (43.2)	180 (38.7)	228 (39.6)
Evening Programs	2,850	484	3,334	552 (19.4)	68 (14.0)	620 (18.6)
Total	13,805	5,014	18,819	3,893 (28.2)	1,976 (39.4)	5,869 (31.2)

Table 2. Distribution of Respondents in the University Students by College Grade and Sex

College grade	No. of attended students			Respondents		
	Male	Female	Both	Male (%)	Female (%)	Both (%)
Freshman	4,198	1,451	5,649	1,355 (32.3)	504 (34.7)	1,859 (32.9)
Sophomore	3,723	1,472	5,195	1,137 (30.5)	740 (50.3)	1,877 (36.1)
Junior	3,040	1,168	4,208	901 (29.6)	469 (40.2)	1,370 (32.6)
Senior	2,844	923	3,767	500 (17.6)	263 (28.5)	763 (20.3)
Total	13,805	5,014	18,819	3,893 (28.2)	1,976 (39.4)	5,869 (31.2)

Table 3. Age Distribution of Respondents in the University Students by Sex

Age (yrs.)	Male		Female		Both	
	No.	(%)	No.	(%)	No.	(%)
—18	306	(7.9)	232	(11.7)	538	(9.2)
19	740	(19.0)	462	(23.4)	1,202	(20.5)
20	732	(18.8)	586	(29.7)	1,318	(22.5)
21	436	(11.2)	380	(19.2)	816	(13.9)
22	256	(6.6)	219	(11.1)	475	(8.1)
23	208	(5.3)	60	(3.0)	268	(4.6)
24	382	(9.8)	24	(1.2)	406	(6.9)
25	405	(10.4)	6	(0.3)	411	(7.0)
26—	428	(11.0)	7	(0.4)	435	(7.4)
Total	3,893	(100.0)	1,976	(100.0)	5,869	(100.0)

본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Eysenck가 고안한 질문지형 모슬리 성격검사(Maudsley Personality inventory: 신경증 척도)⁸⁾인데 그 내용은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몇 차례에 걸쳐서 수정하였다⁹⁾ 국내에서는 성¹⁰⁾이 타당도를 입증한후 김¹¹⁾이 한국판을 만들었다.

이 척도가 측정하는 성격의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성 척도(emotional scales)인데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의 성격 특징은 수면장애나 신체통증 같은 정신신체적 증세, 지속적인 예민 반응, 우울경향 및 감정변화 등이 비합리적으로 나타나면서 강직한 일면이 두드러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서성 척도의 점수가 낮은 경우는 안정감 및 침착성을 보이면서 과잉정서 반응을 나타내지만 쉽게 원상으로 회복한다.

둘째, 외향성과 내향성 척도인데 그 중 외향성 점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은 사교성, 추구성, 명랑성 및 활동성 등이 과장되어 이를 통제 할 수 없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이 들어 난다 이런 사람은 남의 질문을 받으면 즉석에서 쉽게 대답하지만 친구나 주위의 사람들로 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경향을 띤다 그러나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꼭 좋아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내향성 척도의 점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은 사색과 독서 및 소수 친구와의 친교유지는 되나 지나친 윤리 도덕관 그리고 나약한 공격성 및 비관적 태도 등을 보인다

세번째, 정서성 척도의 점수와 외향성 척도의 점

수가 동시에 높을 때에는 지나친 염려, 안절부절, 과잉흥분 및 과잉공격 등 성격의 까다로운 면이 두드러진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 경향을 내용으로 한 질문형식 척도이다.

조사대상자가 각 문항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피검자가 검사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평가된 성적은 남대생 24점 이상, 여대생 26점 이상의 경우를 유의한 수준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된 재학생을 분석하였다.¹⁰⁾⁻¹²⁾ 그리고 신경증, 불안 및 우울척도의 각 항목을 상호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전산처리하여 필요에 따라 변량분석(ANOVA) 및 t검정을 시행하였다.

성 적

신경증 척도로 평가한 남자 대학생(후후: 남대생으로 약함)의 평균총점은 13.45 ± 7.44 이며, 여자 대학생(후후: 여대생으로 약함)은 16.89 ± 7.19 로서 여대생이 남대생 성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항목별 성적중 남대생이 높게 평가한 항목은 ⑩ 이유없는 기분변화인 행복감이나 우울감, ⑳ 백일몽, ① 현기증, ② 심장박동 증가 및 ③ 건강 염려 등이었고, 여대생이 높게 평가한 항목은 ⑫ 이유없는 기분변화인 행복감이나 우울감, ① 현기증, ③ 백일몽, ⑧ 혐오경험 및 ⑨ 과잉신경질

등으로 나타났다

남대생의 하위항목은 ③ 신경과민, ⑦ 두부의 상으로 인한 2 시간 이상 졸도, ④ 병으로 인한 결근, ⑳ 신경질 내기 및 ㉑ 승강기, 기차 및 굴 속에서 과잉불안감 등이며, 여대생은 ③ 신경과민, ⑦ 두부의 상으로 인한 2 시간 이상 졸도, ④ 병으로 인한 결근, ⑪ 흥분으로 인한 떨림증 및

㉒ 승강기, 기차 및 굴 속에서 과잉불안감 등으로 나타났다(표 4).

남대생의 평균총점의 분포는 0~10점대가 38.3% (1,491명), 11~20점대가 43.5% (1,695명), 21~30점대가 16.5% (641명), 31~40점대가 1.7% (66명)으로 24점 이상이 10.3% (398명)이었다. 여대생의 평균총점의 분포는 0~10점대가 21%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cores of Neuroticism Scale in 5869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tem	Male (N=3,893) M ± SD	Female (N=1,976) M ± SD
1. Do you have dizzy turns?	0.57 ± 0.50	0.78 ± 0.41***
2. Do you get palpitations or thumping in your heart?	0.55 ± 0.50	0.65 ± 0.48***
3. Did you ever have a nervous breakdown?	0.05 ± 0.22	0.05 ± 0.22
4. Have you ever been off work through sickness a good deal?	0.09 ± 0.29	0.13 ± 0.34***
5. Did you often use to get 'stage fright' in your life?	0.45 ± 0.50	0.49 ± 0.50**
6. Do you find it difficult to get into conversation with strangers?	0.37 ± 0.48	0.30 ± 0.46***
7. Have you ever been made unconscious for two hours or more by an accident or blow?	0.05 ± 0.22	0.05 ± 0.22
8. Do you worry too long over humiliating experiences?	0.52 ± 0.50	0.70 ± 0.46***
9. Do you consider yourself rather a nervous person?	0.53 ± 0.50	0.67 ± 0.47***
10. Are your feelings easily hurt?	0.36 ± 0.48	0.53 ± 0.50***
11. Are you subject to attacks of shaking or trembling?	0.14 ± 0.35	0.17 ± 0.38***
12. Are you an irritable person?	0.27 ± 0.45	0.42 ± 0.49***
13. Do ideas run through your head so that you cannot sleep?	0.49 ± 0.50	0.53 ± 0.50
14. Do you worry over possible misfortunes?	0.27 ± 0.44	0.33 ± 0.47***
15. Are you rather shy?	0.49 ± 0.50	0.55 ± 0.50***
16. Do you sometimes feel happy, sometimes depressed, without any apparent reason?	0.77 ± 0.42	0.90 ± 0.30***
17. Do you sometimes get a pain over your heart?	0.33 ± 0.47	0.53 ± 0.50***
18. Do you have nightmares?	0.21 ± 0.40	0.37 ± 0.48***
19. Do you find it difficult to make friends?	0.41 ± 0.49	0.44 ± 0.50*
20. Does your mind often wander badly, so that you lose track of what you are doing?	0.51 ± 0.50	0.53 ± 0.50
21. Are you touchy on various subjects?	0.25 ± 0.43	0.38 ± 0.49***
22. Do you often feel disgruntled?	0.42 ± 0.49	0.51 ± 0.50***
23. Do you often feel just miserable?	0.28 ± 0.45	0.36 ± 0.48***
24. Do you often feel self-conscious in the presence of your superiors?	0.41 ± 0.49	0.41 ± 0.49

25. Did you ever get short of breath without having done heavy work?	0.28 ± 0.45	0.43 ± 0.50***
26. Do you ever suffer from severe headaches?	0.21 ± 0.41	0.43 ± 0.50***
27. Do you suffer from 'nerves'?	0.11 ± 0.31	0.22 ± 0.41***
28. Are you troubled by aches and pams?	0.14 ± 0.34	0.21 ± 0.41***
29. Do you get nervous in places such as lifts, trans, or tunnels?	0.13 ± 0.33	0.20 ± 0.40***
30. Do you lack self-confidence?	0.18 ± 0.39	0.30 ± 0.46***
31. Are you troubled with feelings of inferiority?	0.31 ± 0.46	0.43 ± 0.50***
32. Do you suffer from attacks of diarrhoea?	0.21 ± 0.40	0.30 ± 0.50***
33. Do you seem to have less life about you than others?	0.38 ± 0.49	0.51 ± 0.50***
34. Have you ever been troubled by a stammer or stutter?	0.46 ± 0.50	0.51 ± 0.50***
35. Do you worry about your health?	0.55 ± 0.50	0.64 ± 0.48***
36. Have you sometimes walked in your sleep?	0.14 ± 0.35	0.35 ± 0.48***
37. Do you usually keep in the background on social occasions?	0.25 ± 0.44	0.27 ± 0.44
38. Do you daydream a lot?	0.69 ± 0.46	0.75 ± 0.43***
39. Do you sweat a great deal without exercise?	0.28 ± 0.45	0.24 ± 0.43***
40. Do you suffer from sleeplessness?	0.36 ± 0.48	0.33 ± 0.47*
Total	13.45 ± 7.44	16.89 ± 7.19***

SD: Standard Deviation

* P < 0.05

** P < 0.01

*** P < 0.001

M: Mean

(415명), 11~20점대가 46.8% (925명), 21~30점대가 29.3% (579명), 31~40점대가 2.9% (57명) 으로서 26점 이상이 13.0% (256명)로 나타나 남대생보다 여대생이 높은 성적을 보였다(표 5).

소속대학에 따른 성적은 남대생의 경우 교육대학생들의 평균총점이 20.9로서 가장 높았고 여대생의 경우 법정대생들의 평균총점이 22.0로서 가장 높았으며 고득점자는 교육대학(18.7%), 법정대학(28.6%)이었다

학년별로 평가한 남대생 고득점자의 수는 1학년(12.0%), 2학년(10.2%), 4학년(9.6%) 및 3학년(8.0%)의 순으로 많았고, 이 분포는 유의성이 있었다(P < 0.001). 여대생은 1학년(13.9%), 4학년(13.3%), 2학년(12.6%), 3학년(12.4%) 순으로 고득점자가 많았으며 이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장지에 따른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중소도시(10.6%), 면(10.4%), 대도시(10.1%), 및 읍(9.7%)의 순으로 이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대생일 경우 읍(16.7%), 중소도시(14.1%), 대도시(12.5%) 및 면(10.2%)의 순

Table 5. Total Score Distribution of Neuroticism Scale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otal score	Male (N= 3, 893) No. (%)	Female (N= 1, 976) No. (%)
0—10	1,491 (38.3)	415 (21.0)
11—20	1,695 (43.5)	925 (46.8)
21—22	210 (5.4)	183 (9.3)
23	99 (2.5)	87 (4.4)
24	73 (1.9)	64 (3.2)
25	57 (1.5)	46 (2.3)
26	51 (1.3)	57 (2.9)
27—30	151 (3.9)	142 (7.2)
31—40	66 (1.7)	57 (2.9)

으로 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출신고등학교 소재지별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면(11.4%), 읍(10.9%), 중소도시(10.3%) 및 대도시(10.1%)의 순이었고, 여대생은 대도시(13.0%), 중소도시(12.9%), 읍(12.3)

%) 및 면(12.1%)의 순으로 이 성적은 남녀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거주지에 따른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기타(12.9%), 자취(10.7%), 자택(10.3%), 기숙사(9.0%) 및 친척이나 하숙(8.1%)의 순으로 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대생은 기타(40.0%), 기숙사(31.7%), 친척이나하숙(14.7%), 자취(12.4%) 및 자택(12.4%)의 순이었으며 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종교별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무교(10.6%), 천주교(10.4%), 기타(10.3%), 불교(9.6%) 및 개신교(9.3%) 순이었고, 여대생은 천주교(16.4%), 무교(13.6%), 불교(12.0%), 개신교(10.1%) 및 기타는 한명도 없으며, 이 성적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속대학 선택에 대한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불만(16.2%), 보통(10.5%) 및 만족(7.0%)의 순이었고, 여대생은 불만(20.5%), 보통(13.0%) 및 만족(9.7%)의 순으로 이 성적은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현재 소속학과 선택에 대한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불만(16.9%), 보통(10.0%) 및 만족(8.3%)의 순이었고, 여대생은 불만(22.0%), 보통(13.2%) 및 만족(8.9%)의 순으로 이들 성적은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자기자신의 과거의 만족정도에 대한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비판(18.8%), 보통(8.7%) 및 낙관(6.8%)순이었고, 여대생은 비판(26.7%), 보통(11.6%) 및 낙관(9.8%)의 순으로 이들 성적은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자기자신의 현재의 만족정도에 대한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비판(23.2%), 보통(8.0%)

및 낙관(6.4%)의 순이었고, 여대생은 비판(28.9%), 보통(10.9%) 및 낙관(5.8%)의 순으로 이들 성적은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정도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비판(23.2%), 보통(11.5%) 및 낙관(5.8%)의 순이었고, 여대생은 비판(29.4%), 보통(13.3%) 및 낙관(8.4%)의 순으로 이들 성적은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학비부담자별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부모로부터 학비를 받는 학생(10.5%), 장학금(9.3%), 본인(7.9%) 및 형제자매(7.6%) 순이었으며, 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여대생은 형제자매로부터 학비를 타는 경우(33.3%), 부모(13.0%), 장학금(8.9%) 및 본인(6.5%)의 순으로 이에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월잡비별 성적은 남대생 고득점자일 경우 용돈을 월 10만원 이상 쓰는 경우(12.1%), 1만~3만원(11.8%), 1만원 미만(10.8%), 3만~5만원(10.2%), 7만원~10만원(9.4%) 및 5만~7만원(8.1%) 순으로 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05$), 여대생은 월 잡비가 1만원 미만(18.0%), 7만~10만원(17.4%), 5만~7만원(13.8%), 1만~3만원(12.8%), 3만~5만원(12.2%) 및 10만원 이상(7.6%)의 순으로 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6).

신경증 경향과 불안 및 우울성적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신경증 척도 문항인 ③ 활동력 저하 및 ② 심장박동 증가 등은 불안척도, ⑧ 피로감($r=0.46$)

Table 6 Mean scores of Neuroticism Scale in the College Students by Psychosocial Factors and Sex

Factors	Male (N=3, 893)			Female (N=1, 976)		
	No. of subjects (%)	Mean score	No. of subjects score 24 & over (%)	No. of subjects (%)	Mean score	No. of subjects score 26 & over (%)
College						
Liberal arts	450(11.6)	20.3	53(11.8)	550(27.8)	21.2	82(14.9)
Science	134(3.4)	19.7	6(4.5)	91(4.6)	21.0	10(11.0)
Engineering	1413(36.3)	20.2	151(10.7)	31(1.6)	20.7	4(12.9)
Law and political science	100(2.6)	20.3	11(11.0)	7(0.4)	22.0	2(28.6)

Commerce and Economics	409 (10.5)	20.1	42 (10.3)	9 (0.5)	21.0	1 (11.1)
Medicine	206 (5.3)	20.1	22 (10.7)	34 (1.7)	20.2	3 (8.8)
Pharmacy	48 (1.2)	20.8	7 (14.6)	156 (7.9)	20.6	17 (10.9)
Agriculture and Animal science	355 (9.1)	20.1	31 (8.7)	38 (1.9)	21.5	6 (15.8)
Home Economics	0 (0.0)	0.0	—	413 (20.9)	20.8	49 (11.9)
Education	91 (2.3)*	20.9	17 (18.7)	260 (13.2)	21.1	34 (13.1)
Fine Arts	87 (2.2)	20.1	9 (10.4)	139 (7.0)	21.3	17 (12.2)
Music	48 (1.2)	20.0	5 (10.4)	180 (9.1)	20.9	20 (11.1)
Evening Programs	552 (14.2)	19.9	44 (8.0)	68 (3.4)**	21.6	11 (16.2)
School grade						
Freshman	1355 (34.8)***	20.3	162 (12.0)	504 (25.5)	21.1	70 (13.9)
Sophomore	1137 (29.2)	20.2	116 (10.2)	740 (37.5)	21.0	93 (12.6)
Junior	901 (23.1)	20.0	72 (8.0)	469 (23.7)	21.0	58 (12.4)
Senior	500 (12.8)	20.0	48 (9.6)	263 (13.3)	21.0	35 (13.3)
Maturation location						
Myun	1105 (28.4)	20.2	115 (10.4)	254 (12.9)	20.9	26 (10.2)
Up	485 (12.5)	20.1	47 (9.7)	221 (11.2)*	21.5	37 (16.7)
City	498 (12.8)	20.2	53 (10.6)	305 (15.4)	21.1	43 (14.1)
Large city	1805 (46.4)	20.1	183 (10.1)	1196 (60.5)	20.9	150 (12.5)
Location of high school from which graduated						
Myun	114 (2.9)	20.1	13 (11.4)	33 (1.7)	21.0	4 (12.1)
Up	239 (6.1)	20.1	26 (10.9)	98 (5.0)	21.0	12 (12.3)
City	683 (17.5)	20.2	70 (10.3)	311 (15.7)	21.1	40 (12.9)
Large city	2857 (73.4)	20.1	289 (10.1)	1534 (77.6)	21.0	200 (13.0)
Residence						
Own house	2322 (59.7)	20.1	240 (10.3)	1524 (77.1)	20.9	189 (12.4)
Relatives & boarding	369 (9.5)	20.0	30 (8.1)	68 (3.4)	21.3	10 (14.7)
Self-cooking	1010 (25.9)	20.2	108 (10.7)	338 (17.1)	21.0	42 (12.4)
Dormitory	122 (3.1)	20.2	11 (9.0)	41 (2.1)	22.7	13 (31.7)
Others	70 (1.8)	20.2	9 (12.9)	5 (0.3)***	24.4	2 (40.0)
Religion						
Protestant	624 (16.0)	20.1	58 (9.3)	387 (19.6)	20.8	39 (10.1)
Catholic	259 (6.7)	20.1	27 (10.4)	208 (10.5)	21.4	34 (16.4)
Buddist	667 (17.1)	20.1	64 (9.6)	251 (12.7)	20.8	30 (12.0)
Others	39 (1.0)	20.1	4 (10.3)	7 (0.4)	19.4	0 (0.0)
None	2304 (59.2)	20.2	245 (10.6)	1123 (56.8)	21.1	153 (13.6)
Satisfaction with college						
Dissatisfied	631 (16.2)***	20.8	102 (16.2)	268 (13.6)***	21.8	55 (20.5)
Mediate	1950 (50.1)	20.1	204 (10.5)	1066 (54.0)	21.0	139 (13.0)
Satisfied	1312 (33.7)	19.8	92 (7.0)	642 (32.5)	20.7	62 (9.7)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Dissatisfied	508 (13.1)***	20.9	86 (16.9)	291 (14.7)***	21.9	64 (22.0)
Mediate	1850 (47.5)	20.1	184 (10.0)	987 (50.0)	21.1	130 (13.2)

Satisfied	1535 (39.4)	19.9	128 (8.3)	698 (35.3)	20.6	62 (8.9)
Past self-image						
Pessimistic	749 (19.2)***	21.1	141 (18.8)	236 (11.9)***	22.6	63 (26.7)
Uncertain	2325 (59.7)	19.9	201 (8.7)	1268 (64.2)	20.9	147 (11.6)
Optimistic	819 (21.0)	19.8	56 (6.8)	472 (23.9)	20.5	46 (9.8)
Present self-image						
Pessimistic	629 (16.2)***	21.5	146 (23.2)	294 (14.9)***	23.0	85 (28.9)
Uncertain	2666 (68.5)	19.9	214 (8.0)	1441 (72.9)	20.8	157 (10.9)
Optimistic	598 (15.4)	19.7	38 (6.4)	241 (12.2)	20.1	14 (5.8)
Future self-image						
Pessimistic	323 (8.3)***	21.7	75 (23.2)	170 (8.6)***	22.9	50 (29.4)
Uncertain	2061 (52.9)	20.2	236 (11.5)	1115 (56.4)	21.1	148 (13.3)
Optimistic	1509 (38.8)	19.7	87 (5.8)	691 (35.0)	20.4	58 (8.4)
Educational fee from						
Parents	3414 (87.7)**	20.1	359 (10.5)	1820 (92.1)	21.0	237 (13.0)
Brothers & sisters	211 (5.4)	19.9	16 (7.6)	24 (1.2)**	23.2	8 (33.3)
Scholarship fund	129 (3.3)	19.9	12 (9.3)	101 (5.1)	20.5	9 (8.9)
Self	139 (3.6)	19.8	11 (7.9)	31 (1.6)	20.8	2 (6.5)
Spending money per month (won)						
Under 10,000	148 (3.8)*	20.4	16 (10.8)	39 (2.0)	21.4	7 (18.0)
10,000—29,000	948 (24.4)	20.3	112 (11.8)	478 (24.2)	20.8	61 (12.8)
30,000—49,000	1539 (39.5)	20.1	157 (10.2)	927 (46.9)	21.0	113 (12.2)
50,000—69,000	750 (19.3)	20.0	61 (8.1)	341 (17.3)	21.1	47 (13.8)
70,000—90,000	351 (9.0)	20.1	33 (9.4)	138 (7.0)	21.8	24 (17.4)
Over 100,000	157 (4.0)	20.4	19 (12.1)	53 (2.7)	20.5	4 (7.6)

* : P < 0.05

** : P < 0.01

*** : P < 0.001

및 ⑩ 심계항진 ($r=0.45$) 등으로, 신경증 척도 ② 심장박동 증가 및 ③ 활동력 저하 등은 우울 척도, ⑨ 심계항진 ($r=0.48$) 및 ⑩ 피로감 ($r=0.42$) 등에 각각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표 7).

고 찰

본 조사 결과 신경증 척도의 평균총점은 남대생 13.45 ± 7.44 이고 여대생 16.89 ± 7.19 으로 김¹¹⁾이 발표한 남대생 13.67 ± 9.47 , 여대생 15.94 ± 6.51 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성¹⁰⁾은 남녀 구별없이 정상인이 14.68 ± 5.05 으로 발표한 바와 비교가 된다. 본 조사에서 남녀별로 볼 때 여자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불안경향 및 우울경향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

Table 7. Correlations Between Anxiety, Depression and Neuroticism Scales in 5,869 Responded College Students

Anxiety and Neuroticism Items	Correlation
Fatigue vs. Do you seem to have less life about you than others	0.46
Palpitation vs. Do you get palpitations or thumping in your heart?	0.45
Depression and Neuroticism Items	Correlation
Restlessness vs. Do you get palpitations or thumping in your heart?	0.48
Fatigue vs. Do you seem to have less life about you than others?	0.42

를 보이고 있다.

항목별 성적에서 남대생에서 높게 평가한 항목은 ⑩ 이유없는 기분변화인 행복감이나 우울감, ⑳ 백일몽, ① 현기증, ② 심장박동증가 및 ③ 건강염려 등이었고 여대생이 높게 평가한 항목은 ⑩ 이유 없는 기분변화인 행복감이나 우울감, ① 현기증, ㉑ 백일몽, ⑧ 혐오경험 및 ⑨ 과잉신경질 등으로 나타나 대체로 남녀에서 높은 정서성 척도와 내향성 경향의 비슷한 항목이 상승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항목들은 Zung의 자가평가 불안척도¹³⁾ 문항인 호흡곤란(dyspnea), 심계항진(palpitation), 두려움(fear), 졸도감(faintness), 우려(apprehension) 및 진전(tremors) 등과 우울척도¹⁴⁾ 문항인 우울감(depressed affect), 일일 감정변동(diurnal variation), 심계항진(tachycardia), 과민성(irritability) 및 절망감(hopelessness) 등의 항목들이 상승한 결과와 비슷한 내용이다. 이는 불안 및 우울척도와 신경증 척도와의 상위증상을 상호 비교해 볼 때 신경증척도 내용에 불안 및 우울증세가 포함하고 있음을 입증해 준 결과라고 간주된다.

두번째로 성적의 점수분포는 남자 24점, 여자 26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남대생의 경우 10.3% (398명), 여대생의 경우 13.0% (256명)이다.

세째, 이와 같은 신경증적 경향의 고득점율이 어떠한 사회정신 의학적 요인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남녀 대학생에서 공통적으로 신경증적 경향과 유관한 요인들은 소속대학 선택 및 현재 소속학과에 대한 불만족과 과거 및 현재의 만족도와 미래의 기대에 대한 비관적인 경우 등이었다. 이는 불안, 우울 및 정신증적 경향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자아주체성 확립이 부족하여 과도기적 상태에 있거나 자아위기, 고립감, 신체적 성숙과 더불어 정신적 성장에서 오는 열등감 등을 잘 극복하지 못한 결과 가족 및 사회적인 압박이 가해지다 보면 개인적인 억압 및 갈등이 더 심해진 때문에 신경증 성적이 높은 것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다.¹⁵⁾ 한편 남대생에 있어서는 1학년이 유의하게 신경증적 성적이 높은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결과중 소속 대학 선택 또는 현재 소속학과에 대한 불만족이 신경증적 경향을 높인 점과 상승한다고 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경증적 성적이 낮은 것은 불안, 우울 및 정신증적 경향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부합한다

그 외 성장지별, 현재 거주지별, 학비부담자별 및 월 잡비별 등의 성적에 대해서는 남녀 대학생에서 상이한 점을 보였는데 즉, 남대생은 부모로부터 학비를 타는 경우($P < 0.01$) 유의하게 높은 신경증적 성적 및 고득점율을 보였다. 남대생은 일만원 이하 용돈을 쓰는 경우에서 유의하게 높은 성적($P < 0.05$) 및 고득점율을 보였고, 여대생은 성장지별에서 읍에 거주하는 경우($P < 0.05$) 유의하게 높은 성적 및 고득점율을 보였으며, 현재 거주지별에서 기타인 경우($P < 0.001$)에서 높은 성적 및 고득점율을 보였으나 사례 수가 적어서 통계적인 의미는 적다고 본다 여대생은 학비 부담자별에서 형제자매로부터 학비를 타는 경우 고득점 자가 유의하게 많았다($P < 0.01$).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작용되었을 것인지 추정하기 어려우나 차후 개별적인 원인분석을 위한 개인 상담을 추진한다면 공통요인이 추구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요 약

영남대학교 재학생의 신경증적 경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경증 척도를 사용하여 새학생 5,869명(남대생 : 3,893, 여대생 : 1,976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 평균점수는 남대생 13.45 ± 7.44 이며, 여대생 16.89 ± 7.19 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P < 0.001$).

신경증 척도의 항목별 성적은 남대생은 ⑩ 이유없는 기분변화인 행복감이나 우울감, ㉑ 백일몽, ① 현기증, ② 심장박동증가 및 ③ 건강염려 등의 항목이 높았다($P < 0.001$). 여대생은 ⑩ 이유 없는 기분변화인 행복감이나 우울감, ① 현기증, ㉑ 백일몽, ⑧ 혐오경험 및 ⑨ 과잉신경질 등의 항목이 높았다($P < 0.001$).

신경증 성적 분포는 남대생 24점 이상이 10.3% (398명), 여대생 26점 이상이 13.0% (256명)이었으며 전체중 11.1% (654명)로 여대생에서 고득점자가 많았다.

신경증과 관련된 사회정신 의학적 요인중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은 소속대학 선택과 현재소속학과에 대한 불만족인 경우($P < 0.001$) 및 자기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만족도에 있어서 비관적인 경우($P < 0.001$) 등에서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보였다 또 학비부

담자에서 남대생은 부모로부터 학비를 받는 경우($P < 0.01$) 및 여대생은 형제자매로부터 학비를 받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보였다. 남대생 단독으로 고득점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친 요인은 1학년일 경우($P < 0.001$), 월잡비에서 일만원 이하의 용돈을 쓰는 경우였으며, 그리고 여대생에서는 성장지별에서 읍단위인 경우($P < 0.05$)와 현재거주지별에서 기타인 경우($P < 0.001$) 등이었다.

상관계수($r=0.40$ 이상)는 신경증척도 ③ 활동력 저하 및 ② 심장박동 증가 등은 불안척도 ⑧ 피로감($r=0.46$) 및 ⑩ 심계항진($r=0.45$) 등이었고, 신경증 척도 ② 심장박동증가 및 ③ 활동력 저하 등은 우울척도, ⑨ 심계항진($r=0.48$) 및 ⑩ 피로감($r=0.42$) 등에 각각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참 고 문 헌

1. Kolb, L. C. and Brodie, H. K.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W. B. Saunders co., Philadelphia, 1982, p. 463.
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III). 3rd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 C., 1980, pp. 9-10.
3. Freud S. :Sexuality in the aetiology of the neuroses, Collected Papers, Vol 3, The Hogarth Press, London, 1957. pp. 263-285.
4. Freud, A.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ce, International Univ. Press, Inc., New York, 1946.
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II). 2nd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 C., 1968.
6.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rev 9.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1977.
7. Eysenck, H. J., :Dimensions, of Personali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47.
8. Eysenck, H. J., :The Maudsley Personality Inventory.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1959.
9. Eysenck, H. J. & Eysenck, S. B. G. :The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Inventory,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1964.
10. 성기성 :H. J. Eysenck의 모스리 의학적 설문지의 한국판 작성을 위한 타당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62.
11. 김성태 :Eysenck의 Maudsley Medical Questionnaire의 한국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문리논집 문학부편 제 7 집, 1963, pp. 239-256.
12. 조사연구부 :신입생 심리검사 결과(1976-1977), 학생지도연구, 제 4 권 제 1 호, 통권 4 집, 성균관대학교 학생문제연구소, 1978, p. 164.
13. Zung, W. W. K. :A rating instrument for anxiety disorders. Psychosomatics, 12:371-379, 1971.
14. Zung, W. W. K.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 Gen. Psychiat., 12:63-70, 1965.
15. Erikson, E. H. :Childhood & Society, 2nd ed. New York, W. W. Norton, 1963, pp. 255- 258.

— Abstract —

A Study on Neuroticism in College Students

Jung Hoon Lee, Hyeong Bae Park, and Sung Douk Cheung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Taegu, Korea*

The authors studied neuroticism, using Eysenck's Maudsley Personality Inventory (MPI), in 3,893 male college students and 1,976 female college students of Yeungnam Universit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averages of total neuroticism scor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male students scored 13.45 ± 7.44 , female students scored 16.89 ± 7.19 .

The items relating to (16) Do you sometimes feel happy, sometimes depressed, without any apparent reason? (38) Do you daydream a lot? (1) Do you have dizzy turns? (2) Do you get palpitations or thumping in your heart? and (35) Do you worry about your health? were scored highly in male, and the items relating to (16) Do you sometimes feel happy, sometimes depressed, without any apparent reason? (1) Do you have dizzy turns? (38) Do you daydream a lot? (8) Do you worry too long over humiliating experiences? (9) Do you consider yourself rather a nervous person? were scored highly in female.

Three hundreds and ninety eight male students (10.3%) showed seriously high neuroticism scores of 24 or higher, while 256 female students (13.0%) showed high neuroticism scores of 26 or higher.

In a comparison between male students in different school grades, freshman showed the highest level of neuroticism scores.

Among the psychosocial factors, there were strong tendencies toward higher neuroticism scores in the students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colleges or departments, and who had pessimistic views of self-image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in both groups.

The male students whose educational fees were paid by their parents, and whose spending money per month was under 10,000 won, showed higher neuroticism scores.

The female students whose educational fees were paid by their brothers or sisters, and whose maturation locations were U-P, and who resided in dormitory or other residencies, showed higher neuroticism scores.

- 부 표 -

Neuroticism Scale (신경증 척도)

		예	아 니 오
1. Do you have dizzy turns ?	1. 당신은 가끔 머리가 어쩔 어쩔 할 때 (현기증)가 있습니까?		
2. Do you get palpitations or thumping in your heart ?	2.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마구 뿔 때가 있습니까?		
3. Did you ever have a nervous breakdown ?	3. 전에 신경쇠약이나 노이로제 혹은 정신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4. Have you ever been off work through sickness a good deal ?	4. 몸이 아파서 여러 번 학교나 직장을 쉰 적이 있습니까?		
5. Did you often use to get 'stage fright' in your life ?	5. 여러 사람 앞이나 단위에 서면 공연히 불안해지고 떨려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6. Do you find it difficult to get into conversation with strangers ?	6. 처음 보는 사람과는 말을 거는 것조차 어려워져 주저하는 편입니까?		
7. Have you ever been made unconscious for two hours or more by an accident or blow ?	7. 뜻하지 않은 사고나 또는 얻어 맞아서 두시간 이상 까무러친 적이 있습니까?		
8. Do you worry too long over humiliating experiences ?	8.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고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입니까?		
9. Do you consider yourself rather a nervous person ?	9. 자기 자신이 신경질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10. Are your feelings easily hurt ?	10.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쉽게 나빠지는 편입니까?		
11. Are you subject to attacks of shaking or trembling ?	11. 흥분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거나, 수족이 떨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12. Are you an irritable person ?	12. 당신은 짜증을 잘 내는 편입니까?		
13. Do ideas run through your head so that you cannot sleep ?	13. 여러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까?		
14. Do you worry over possible misfortunes ?	14. 앞으로 무슨 불길한 일이 닥쳐올 것 같아서 자꾸만 걱정이 됩니까?		
15. Are you rather shy ?	15.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입니까?		
16. Do you sometimes feel happy, sometimes sometimes depressed, without any apparent reason ?	16. 공연히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떤 때는 나빠지는 수가 있습니까?		
17. Do you sometimes get a pain over your heart ?	17. 때때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까?		
18. Do you have nightmares ?	18. 무서운 꿈으로 가위에 눌릴 때가 있습니까?		
19. Do you find it difficult to make friends ?	19. 당신은 새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운 편입니까?		

20. Does your mind often wander badly, so that you lose track of what you are doing ?	20. 잡념이 많아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21. Are you touchy on various subjects ?	21. 당신은 여러가지 일에 골을 잘 내거나 마음이 쉽게 상하는 편입니까?		
22. Do you often feel disgruntled ?	22. 자주 불평불만을 느끼게 되는 편입니까?		
23. Do you often feel just miserable ?	23. 자기는 정말 불쌍하고 비참하다고 느끼는 적이 자주 있습니까?		
24. Do you often feel self-conscious in the presence of your superiors ?	24. 윗 사람이 있는 데에서는 긴장감이 심하고 기가 죽는 일이 많은편입니까?		
25. Did you ever get short of breath without having done heavy work ?	25. 그리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숨이 차서 가빠지는 일이있습니까?		
26. Do you ever suffer from severe headaches ?	26. 심한 두통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까?		
27. Do you suffer from 'nerves' ?	27. 신경질이 나서 못견디는 편입니까?		
28. Are you troubled by aches and pains ?	28. 몸이 쭈시고 아파서 괴로워 하는 편입니까?		
29. Do you get nervous in places such as lifts, trains, or tunnels ?	29. 승강기, 기차, 굴속 같은데 있으면 불안해 집니까?		
30. Do you lack self-confidence ?	30. 매사에 자신이 없습니까?		
31. Are you troubled with feelings of inferiority ?	31. 나는 남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아 괴로워 합니까?		
32. Do you suffer from attacks of diarrhoea ?	32. 늘 소화가 잘 안되는 편입니까?		
33. Do you seem to have less life about you than others ?	33. 몸에 별로 병이 없는데도 늘 피로 합니까?		
34. Have you ever been troubled by a stammer or stutter ?	34. 시험 볼 때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때 땀이 나거나 떨리는 편입니까?		
35. Do you worry about your health ?	35. 걱정이 많은 편입니까?		
36. Have you sometimes walked in your sleep ?	36.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놀라는일이 있습니까?		
37. Do you usually keep in the background on social occasions ?	37. 여러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는 눈에 뜨일까봐 뒷전으로 도는 편입니까?		
38. Do you daydream a lot ?	38. 공상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39. Do you sweat a great deal without exercise ?	39. 별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몹시 땀을 흘리는 편입니까?		
40. Do you suffer from sleeplessness ?	40. 밤에 잠이 잘 안옵니까?		